

01 교회소식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해외 연합대성회 감동을 되새기며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GCN 방송 프로그램 소개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고,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아 주시며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

03 기획특집

빛의 자녀, 체크 리스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나는 과연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본다.

04 간증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해방됐어요”

두 딸의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믿음을 갖게 된 호주 구항서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03호 2015년 9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다!

순수기독교 GCN 방송 프로그램 ‘믿음으로 걸어온 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해외성회를 인도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한 곳마다 상한 심령과 강박한 마음들이 사랑으로 녹아내리며 온갖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고 수많은 영혼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사진 왼쪽은 GCN 방송이 시험방송을 개시하며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송출실에서 첫 전파를 쏘아올릴 때 밤하늘에 새겨진 광채의 십자가).

2005년 9월 1일 새벽 0시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송출실. 순수기독교방송인 GCN 방송이 개국을 앞두고 시험방송 오픈식을 하면서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그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상공에 갑자기 광채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GCN 방송을 기뻐하신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이날 이후 만 10년이 지났지만 밤하늘에 새겨주신 십자가 모양의 빛줄기는 아직도 성도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최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만민에게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GCN 방송은 끊임없는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며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기독교방송으로 성장했다. 또한 2014년 12월, 올레TV 882번을 런칭해 GCN 방송의 설교, 교양,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깨끗하고 선명한 HD 고화질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방송선교의 비전을 소중히 여겨 GCN 방송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생명력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GCN 방송은 ‘믿음으로 걸어온 길’, ‘회상 2’ 등 신규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방송하며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8월 초 첫 방송된 ‘믿음으로 걸어온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해 세계 선교를 이뤄 온 세계적인 부흥강사이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해외 연합대성회 현장의 전율을 다시 한 번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에서 열네 차례의 대형 연합성회를 인도했다.

특히 우간다 연합대성회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치료돼 세계적 뉴스 전문 채널 CNN에 보도됐고, 회교국 파키스탄에서 열린 연합대성회 때에는 정부의 집회 허가 취소로 성회 장소가 봉쇄됐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인물을 통해 극적으로 성회가 치러졌다.

또 마리나 해변에서 개최된 인도 연합대성회(위사진 하단)는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참석해 최대·최다·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유대교의 나라에서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회교권, 힌두교권 나라뿐 아니라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유대교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침체돼 있는 유럽에서도 성회를 통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다.

성회 개최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으나 이재록 목사가 강단에 올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한 뒤, 환자기도를 하면 그 모든 핍박과 불신이 일시에 사그라졌다. 그의 기도를 통해 무수히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그의 설교가 진실이며 성경이 참임을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걸어온 길’은 이재록 목사의 선교보고와 함께 성회 실황이 영상으로 처리돼 각 성회 시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섬세한 섭리를 조목조목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실을 보지 않는 믿음의 행군,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주일 새벽 0시에 방송되며, GCN 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와 모바일(m.gcntv.org), 올레TV 882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총 46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16)

하나님의 사랑

르고 자신을 잊어버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산을 주긴 했지만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아버지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날마다 아들 걱정에 틈만 나면 마을 밖으로 난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는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낡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긴 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단장시키고 잔치를 벌여 주기 위해 기다리지요.

그렇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과 성령을 받아 진리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것을 기다리십니다. 또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려고 준비해 놓으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가득한 천국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자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2. 주 안에서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가다림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간절한 만큼 오래 참을 수 있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대로 이뤄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면서도 늘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말문이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사람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리 큰 체

힘을 하고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다음날에는 불평하지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금세 원망하고, 기도한 대로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받은 은혜까지 쏟아버립니다.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버려 나가는 열심이 식지는 않았는지, 마음 다해 드리던 예배와 충성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뭔가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려 합니다. 차마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함을 품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악한 자들의 말에 솔깃하고 미혹하는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당장 눈앞의 한 가지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이전의 백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한다 해도 우연으로 돌리지요. 이것이 바로 변질되는 육의 속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공의를 행하셔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에 걸리면 살릴 방법이 없듯이 영적으로도 죄악이 한계에 이르르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 공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쉽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부모의 가슴에는 멍이 듭니다. 하물며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애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연약해 빛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십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사단의 송사를 받고 여러 시험 환난을 당하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아픔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면서도 오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며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벧후 3:15).

3. 주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라는 대로 이뤄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잘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낚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배신과 아담의 불순종을 감수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 가시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들이 변화돼 순교의 사명까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으셨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에 우리의 천국 집을 준비하시며, 그곳에서 만날 때까지 잡수시지도 않고 잔치를 즐기지도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은 끊임없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나올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에 기다리고 계시지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가다림은 변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넉넉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나 재물, 배경 등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양갈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1.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가다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공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결국 세상 유혹에 넘어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했고, 흉년까지 들어 돼지 먹이조차 얻어먹기 힘든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조차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죽게 됐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물론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지와 다름없이 돌아온 자신에게 호통치며 내쫓아 버릴지도 모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송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체크 리스트 3가지

나는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다. 또한 말씀은 곧 하나님(요 1:1)을 의미하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요일 3:21~22). 과연 나는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3가지 항목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자.

□ 불평하고 불만하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곧잘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이다(출 15:26; 신 28장).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인 비진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화내고 수군수군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등 하

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돌아보기는커녕 매사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빛의 자녀라면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해나가며 상대를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데, 혹여 상대를 불편해하고 남의 허물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아무리 옳은 말을 한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불평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해야 한다.
선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못된 것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어찌하든 감사하며 살려고 한다. 하물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평을 버리고 중심에서부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런 마음과 입술이 되면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성할 때 교회 안에서도 부흥과 축복의 열매가 맺히며 각자의 행함과 수고가 응답과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진다.

□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가?

영적인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히 12:9).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똥하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영적인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듯이 영적으로도 영계의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로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질서에 순종할 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영적인 질서를 좇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린 소자가 말한다 해도 순종해야 하며, 온전히 진리 안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 직분을 내세워 자신의 의견에 따를 것을 고집하며 육적인 질서를 앞세우거나, 영적으로 앞섰다고 해서 육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범사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에 맞는지 깨달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가?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짜증내고 다투며,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배신하기도 한다.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녀, 형제간의 사랑도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면 변질되고 서로 등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 탓을 하며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을 생각한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다.
정녕 빛 가운데 거하면 상대의 흠과 티를 보며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 주고 참아 주며 변화될 것을 믿어줌으로 상대의 힘이 되어 준다. 혹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 화평을 이루려 하고 또 화평을 이뤄간다. 자신은 힘들어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며, 비록 내게는 없다 해도 상대가 누리는 것을 보면 행복하게 여긴다.

또한 상대를 위해서 가까이 희생해 줄 수 있고 먼저 낮아지고 섬겨 주되 나를 사랑해 주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섬기며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혹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신의 수고와 공적을 인정받고자 들레거나, 진리를 들고 안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화평을 깨뜨리고 무례히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도 아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깨우쳐 무익한 종(눅 17:7-10)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되 감사와 기쁨,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성해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 돼 빛 가운데 거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 축복이 넘치는 것이다. 만일 빛 가운데 살았는데도 사단이 역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을 알아야 한다. 이때에도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신다.

<p>주요 프로그램 안내</p> <p>SEPTEMBER 2015</p> <p>09.13~09.19</p>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바라볼 것 믿음으로 걸어온 길 7 일곱영 2-3 창세기 강해 6-10 천국 9-13 십자가의 도 14-20 심계명 7-10 우리 삶의 등불 44-45 요한계시록 강해 38-44 예복 2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을 미워하는 것 8 (이수진 목사) 의와 틀 속에 악 (이미경 목사) 영의 세계 44 (이희선 목사) 생명수 15-16 (신동초 목사) 열재앙 10 (정규영 목사) 양선 (김수정 목사) 목자의 마음 (천우진 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1-42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3 창조와 과학 14 옛날 옛적에 7 즐거운 요리 24 내 마음의 찬양 18 English 2-3 모두 드려요 33-34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민매거진(수련회편 3) 믿음으로 걸어온 길 7 회상 (시즌2) 3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	---	---	--	--

“두 딸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아 행복해요!”

구항서 집사 (47세, 호주)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07년 3월, 제가 어머니를 뵈러 한국에 갔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꿈에 뱀이 보여 고통을 받으셨는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시면서 2008년에 이 모든 증상이 사라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등록하게 됐고, 호주로 돌아온 뒤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CD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초부터는 인터넷 예배를 드려 왔지요.

작은 딸 루비, 꿈속에서 기도받은 후 얼굴이 깨끗해지고

2010년 5월, 갓 돌이 된 작은 딸 루비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조금 생겼는데 어느 순간 온몸으로 번졌고 자고 일어나면 긁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요.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 금세 피부가 고들고들해지는데, 병원에서는 피부에 딱지도 생기지 않았지요.

저는 인터넷 예배를 통해 당회장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에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2011년부터 루비와 함께 교회 선교지 '만민뉴스'를 매달 800부씩 이웃에 전하고, 그 당시 운영하던 식당에 해외 성회 DVD 영상과 '만민뉴스'로 하나님 권능을 전했지요.

2012년 12월 말, 꿈에 당회장님께서 루비를 부르시더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 뒤 순식간에 빨갛게 뒤덮였던 루비의 얼굴이 흉터 없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깨끗해지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았지요. 낮에는 긁지 않아서 피부가 고들고들했지만 밤에는 긁어서 또 다시 피투성이가 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루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에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큰 딸 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점차 호전돼

설상가상으로 2012년 말부터는 큰 딸 아라까지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졌습니다. 아라는 어릴 적 팔과 다리 뒤쪽에 약간의 아토피가 있었는데 갑자기 턱 주변으로 시작해 온몸으로 번진 것입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 18세에 더운 날에도 긴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다녀야



▲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받던 딸 루비(사진 왼쪽)와 아라(오른쪽)는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했습니다. 얼굴에 가려움증이 심해 손으로 자주 비비니까 어느 순간에 눈썹이 빠지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학교에도 가지 않으며 많은 날을 집에서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밤새워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며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던 아라가 2014년부터는 변화됐습니다. 이러한 피부 상태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생

각에 인터넷으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세상 것을 끊는 만큼 피부도 좋아졌지요. 하지만 세상 것을 취하면 곧바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면서 아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인터넷으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3일 금식을 일곱 차례 하면서 두 딸의 치료를 위해, 제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해 7월, 두 딸과 함께 한국에 가서 당회장님께서 기도받은 뒤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더욱 노력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자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가니 즉시 치료의 역사 나타나

2015년 6월, 저는 두 딸과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6월 말에 있었던 '기관장 교육'과 8월 초에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두 딸 모두 놀랍게 호전된 것입니다.

작은 딸 루비는 몸에 가려움증이 사라져 환부에 진물이 마르고 굳어져 딱지가 생기더니 어느새 딱지마저 떨어졌지요. 큰 딸 아라도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좋아져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상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반팔과 짧은 치마도 입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해했지요.

이처럼 두 딸의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해 주시니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설교 말씀을 즐겨 들으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내하며 지내온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지요.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사모하게 됐으며 천국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딸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합니다. 작은 딸은 지금까지 감기약 한 번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고, 큰 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는 사랑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껴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제 마음을 먼저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위로와 힘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호주 영혼들에게 열심히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천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2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민길 17, 2층 3호 ☎0559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1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들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호지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곡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8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